

11월 18일 예정대로...국·수도 '선택과목' 도입

2022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1월 18일에 연기 없이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 영역에도 선택 과목제가 도입되고, EBS 연계율도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문·이과 첫 통합 수능...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 도입=올해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은 문·이과 통합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뀐다.

지난해까지 수능에선 국어 영역엔 선택과목이 없고, 수학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계열에 따라 기형·나형으로 나뉘어 시험을 봤다. 그러나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어에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한 후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가지를 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수학에서는 '수학 I, 수학 II'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사회·과학 탐구도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직업 탐구에도 일종의 공통과목이 생긴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1개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은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제2외국어·한문에는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원점수 5점 간격으로 등급이 구분된다.

문·이과 첫 통합 수능...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EBS 연계율 70%→50% 축소...한국사 필수 지정

◇EBS 연계율 70%→50%로...EBS 영어 지문 그대로 출제 안해=EBS 수능 교재,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연계 문항을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전환한다.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고 취지나 내용이 유사한 지문 또는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겠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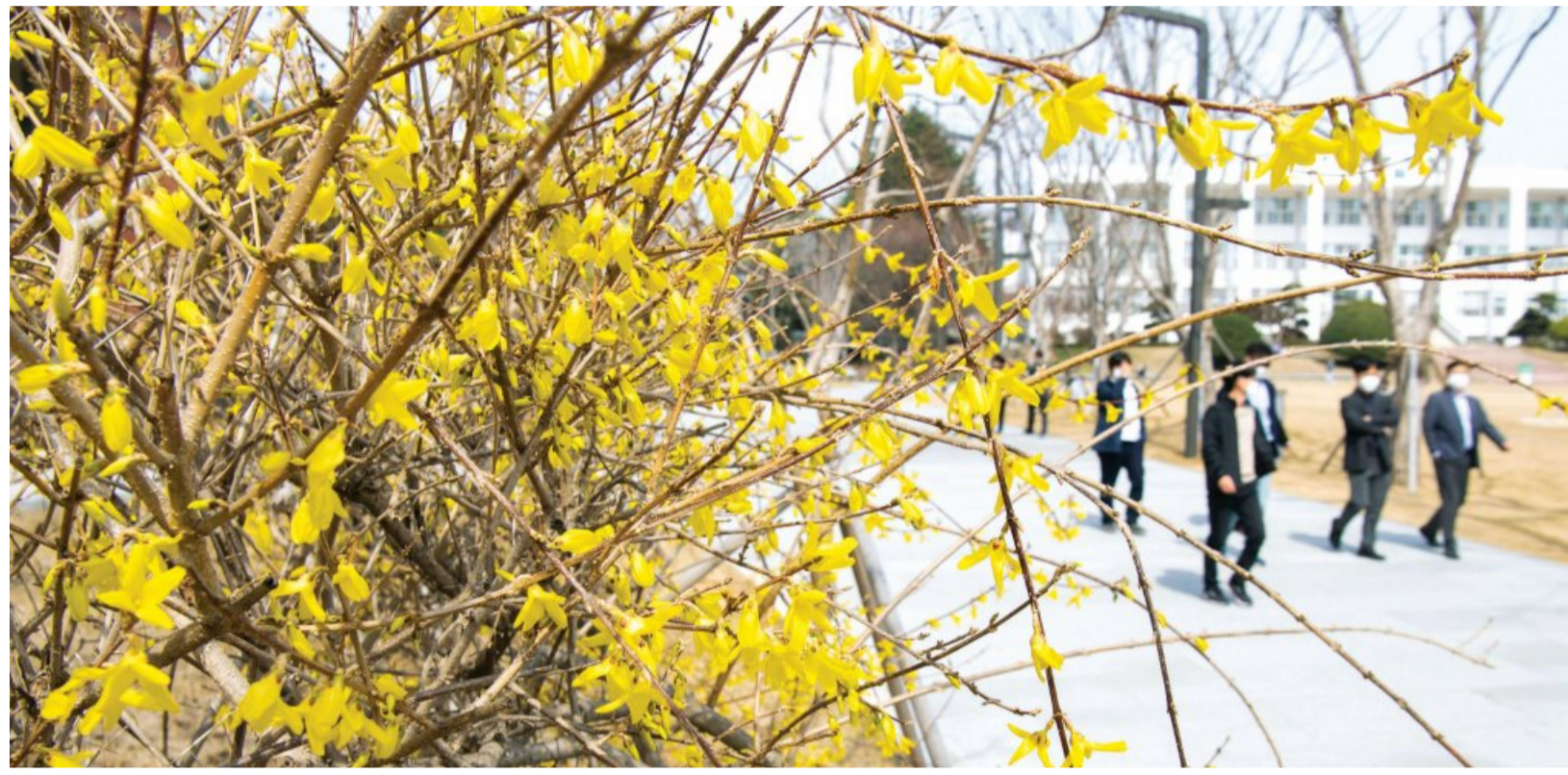
평가원 관계자는 "EBS 교재를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수능이 출제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EBS 연계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인 한국사는 필수영역이라 반드시 응시

해야 한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표지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평가원은 일부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절하진 않을 방침이다.

올해도 6월3일과 9월1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 수험생이 새 수능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를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완연한 봄날씨 광주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16일 오후, 개나리가 활짝 핀 전남대학교 캠퍼스를 시민들이 거닐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장학국 시교육감 비위 의혹 광주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시민교육단체가 고발한 장학국 광주시교육감의 각종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16일 장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경찰청은 장학국 교육감에 대한 사건을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불송치란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일컫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7월 "장 교육감은 인사 교류 불공정 및 인척 특혜, 배우자 금품수수,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며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장 교육감을 고발했던 시민교육단체 측은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 때문 혐의없음 결론으로 장학국 교육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었는지 모르지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체벌 불필요" 76.6% 광주교육정책, 학부모 설문

지역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다수는 훈육 과정에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훈육의 방법으로는 '언어로 훈육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16일 광주시교육청 광주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생 학부모 2만5533명을 대상으로 광주교육 종합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자녀 체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학부모 51.7%는 '신체적 체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 비율 24.9%까지 더하면 조사 대상 학부모 76.6%는 자녀에 대한 신체적 체벌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체벌을 가장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제는 어떤 이유에서든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학부모간 확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게 언어로 훈육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렇다' 23.5%, '대체로 그렇다' 41.8%, '보통이다' 28.4%,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 '전혀 그렇지 않다' 1.8%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칭찬이나 보상으로 훈육하는 비율은 '매우 그렇다' 10.8%, '대체로 그렇다' 30.1%, '보통이다' 4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2.9%, '전혀 그렇지 않다' 4.9%로 조사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미안마 살상 중단하라" 광주·전남 YMCA 성명

광주·전남 YMCA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시민에 대한 미안마 군부의 폭력과 살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YMCA는 "우리는 미안마 소식을 들을 때마다 80년 오월 광주가 떠올라 전율하게 된다"며 "군부 쿠데타에 의한 시민 학살은 어느 나라에서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쟁은 현재 미안마의 군부 쿠데타를 통한 시민 학살과 너무도 닮아 있어 광주시민들의 미안마를 향한 마음은 남다른 수밖에 없다"며 "미안마 군부는 총을 버리고 군인의 당연한 임무인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하루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질환별 맞춤 치료제 신속 전달...마이크로로봇 개발

전남대 로봇연구소, 경로·질환 특성 등 맞춰 모양 바뀔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가 심혈관질환에서부터 간종양이나 무릎연골 손상 등 질병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맞춤형 치료제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의료형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했다.

전남대 로봇연구소 연구진은 마이크로 로봇의 전달경로와 이동 유체, 치료제의 전달형태 등 질환의 특성과 줄기세포, 면역세포, 항암제 등 치료제의 종류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면서 치료제를 정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휘압을 치료해야 할 경우에는 혈액이 고속으로 흐르는 혈관 내에서 혈류를 이겨내며 치료제를 전달해야 하므로, 1초당 785 μm의 빠른 이동속도를 나타내는 타원형 마이크로로봇

이 적합하다. 반면 무릎연골손상의 경우에는 3차원 자유공간에서 점성이 높은 활액을 통해 가야하므로 이동속도보다는 많은 양의 치료제 탑재가 가능한 원형이 더 알맞다.

이와함께 마이크로로봇의 모양을 달리할 경우, 간종양 색전술과 무릎연골재생에서 표출된 낮은 표적효율과 침습적 시술의 단점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로봇은 최소 200 μm(마이크로미터. 1 μm는 100만분의 1m) 크기로 천연고분자(키토산)의 다공성 마이크로구조체 표면에 줄기세포나 면역세포 또는 항암제 등을 실어 나를 수 있으며,

역할을 다하면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된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소재 개발과 치료제 전달에 치우친 마이크로로봇의 편향적 연구를 치료제의 전달효율까지 높이는 것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 논문은 국제 저널 'ACS 나노'(영향력지수 14.6)에 실렸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마이크로로봇로 실용화기술개발사업(총괄책임자 박종오)'으로 이뤄졌으며, 광주시도 이 사업에 투자했다.

박종오 전남대 로봇연구소장은 "일반 의료로봇과 달리 마이크로로봇은 한국이 세계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기술의 다양성 관점에서도 우위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로봇기술이 원천기술에만 머물지 않도록 임상실험을 통해 유효성까지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쯤되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